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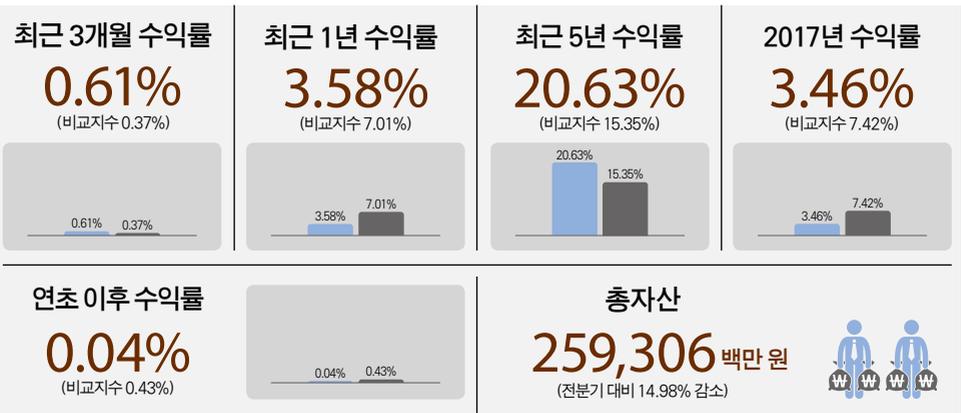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주식 편입비가 30% 이하인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
기업의 본질적 내재 가치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
저위험 적정 수익을 추구합니다.

최초 설정일 | 2006.04.18 | 운용 기간 | 2017.10.18~2018.01.17



위 수익률은 가치투자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

1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는 최근 결산일(2017년 4월 17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하여 연 환산 표준편차가 2.83%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 등급 체계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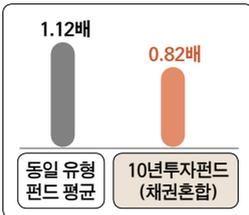
2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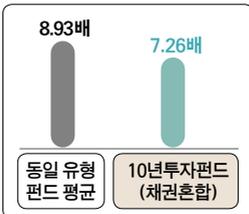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주가/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12~2017.11)
 ※ 동일유형펀드 채권혼합 공모펀드(주식 등 위험 자산 편입비를 평균 15~40%로 운용하는 국내 혼합형 펀드)

Vol.47
2017.10.18~
2018.01.17

봄을 맞이하는 새순에 담긴 시간

새봄을 축복이라도 하듯 말갭게 터져 나오는 새순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늦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생겨 겨울을 넘긴 겨울눈의 시간을 그대로 담고 있기에 새 생명의 가치는 빛납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견뎌낸 인내의 시간이 담긴 10년투자펀드의 가치 또한 앞으로 더욱 환하게 빛나리라 굳게 믿습니다.



장기투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이승혁 자산운용3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시장 변동성 커지는 시기, 안정적인 가치투자로 수익 높여갈 것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운용 기간(2017.10.18~2018.01.17) 동안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0.61%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비교지수 수익률보다 소폭이나마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성장주, 내수산업으로 혼풍 확산 중

이번 분기 주식시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시장을 주도한 업종인 IT 산업에서 반도체 업황 고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KOSDAQ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미디어, 게임업 등 중소형 성장주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 소비 수혜주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2018년에는 원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대형 수출주 중심의 상승장에서 중소형 내수업종으로 온기가 확산되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정부 정책의 기대감으로 KOSDAQ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해 상승한 측면이 크기에 향후 종목에 따른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 약세

다음으로는 이번 분기 채권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국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직전 분기보다 약세를 띠었습니다. 분기 초인 10월에는 기준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습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6년 5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후 인상은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채권시장은 금리의 추가 급등 없이 오히려 단기물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2월에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했고, ECB에서는 기준 금리를 동결하며 주요국의 금리가 결정되었지만 시장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 말 기준 국고채 3년 금리는 전분기 대비 0.25%p 상승한 2.13%,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분기 대비 0.10%p 상승한 2.47%로 마감했습니다.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스프레드는 2017년 12월 말 기준 0.33%p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은행채 발행이 꾸준히 이어지자 직전 분기보다 확대되었으나 금리 인상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 듀레이션을 소폭 축소했습니다.

성장보다는 안정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한 해 될 것

불과 몇 년 전 저성장, 저금리를 걱정하며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회자되었으나 이제는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최근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내수 규제, 부의 양극화 등으로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으나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기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2018년에는 내수 업종에도 혼풍이 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뉴노멀 시대에 성장이란 덕목이 희소성이 있을 때 성장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연시되었으나, 이미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신흥국의 제조업 경기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에는 성장보다는 가치라는 덕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투자 종목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수익을 쌓아 올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리 변동에 유의하며 안정적 이자 수익 추구

다음 분기 채권 금리는 국내외 금리 인상 영향에 금리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분기 초에는 연말에 환매되었던 자금이 점차 유입되며 단기물 위주로 12월 말의 약세를 일부 되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급격하게 축소되었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준 금리 추가 인상 시기는 올 1분기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추가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채권 금리는 박스권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금리 변동성을 통제하며 듀레이션을 중립적으로 운용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3본부장 이승혁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펀드**입니다.
- 펀드 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채권혼합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흥국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KDB생명

기타 |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56288
클래스 A	AE273
클래스 C	AE245
클래스 C-P	AH290
클래스 S	AP748
클래스 C-W	AR355
클래스 C-E	AS482
클래스 A-E	BG296
클래스 C-Pe	BG300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KEB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티스

- **공지 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KE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표로 보는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재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말		금분기말		증감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모)	자산 총액	304,981		259,306		-14.98
	부채 총액	2,443		4,309		76.35
	순자산 총액	302,538		254,997		-15.71
	기준 가격	1,026.46		1,032.73		0.61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A	기준 가격	1,012.78		1,016.63		0.38
클래스 C	기준 가격	1,006.48		1,009.28		0.28
클래스 C-P	기준 가격	1,007.78		1,010.82		0.30
클래스 S	기준 가격	1,016.20		1,020.79		0.45
클래스 C-W	기준 가격	1,033.34		1,038.70		0.52
클래스 C-E	기준 가격	1,014.13		1,018.19		0.40
클래스 A-E	기준 가격	1,029.39		1,033.98		0.45
클래스 C-Pe	기준 가격	1,025.60		1,029.75		0.40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은(펀드 순자산 총액 ÷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기간 수익률

(단위: %, %p)

펀드명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017.10.18~ 2018.01.17	2017.07.18~ 2018.01.17	2017.04.18~ 2018.01.17	2017.01.18~ 2018.01.17	2016.01.18~ 2018.01.17	2015.01.18~ 2018.01.17	2013.01.18~ 2018.01.17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0.61	-0.48	2.44	3.58	5.87	8.39	20.6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4)	(-1.98)	(-3.14)	(-3.43)	(-7.13)	(-4.50)	(5.28)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13.00	12.89	15.35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0.38	-0.93	1.77	2.67	3.99	5.59	15.58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1)	(-2.43)	(-3.81)	(-4.34)	(-9.01)	(-7.30)	(0.23)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13.00	12.89	15.35
클래스 C	0.28	-1.14	1.44	2.24	3.13	4.25	13.12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9)	(-2.64)	(-4.14)	(-4.77)	(-9.87)	(-8.64)	(-2.23)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13.00	12.89	15.35
클래스 C-P	0.30	-1.09	1.50	2.32	3.31	4.49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7)	(-2.59)	(-4.08)	(-4.69)	(-9.69)	(-8.40)	-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13.00	12.89	-
클래스 S	0.45	-0.81	1.93	2.90	4.48	6.47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8)	(-2.31)	(-3.65)	(-4.11)	(-8.52)	(-6.42)	-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13.00	12.89	-
클래스 C-W	0.52	-0.68	2.36	4.48	6.37	9.02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5)	(-2.18)	(-3.22)	(-2.53)	(-6.63)	(-3.87)	-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13.00	12.89	-
클래스 C-E	0.40	-0.86	1.84	2.76	4.18	6.16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3)	(-2.36)	(-3.74)	(-4.25)	(-8.82)	(-6.73)	-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13.00	12.89	-
클래스 A-E	0.45	-0.79	2.09	3.23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8)	(-2.29)	(-3.49)	(-3.78)	-	-	-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	-	-
클래스 C-Pe	0.40	-0.89	1.81	2.74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3)	(-2.39)	(-3.77)	(-4.27)	-	-	-
비교지수	0.37	1.50	5.58	7.01	-	-	-

• 비교지수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KOSPI200 × 27%) + (ICD금리 × 73%)]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시적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투자 실적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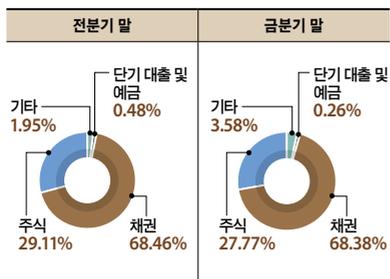
구분	주식	채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3,687	285	23	-5	-3,384
금분기	1,486	206	13	-4	1,702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채권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72,022 (27.77)	177,309 (68.38)	685 (0.26)	9,291 (3.58)	259,306 (100.00)

• ()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1. 주식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SK우	26,500	4,306	1.66	4.68
광주신세계	16,700	3,841	1.48	1.04
메리츠금융지주회사	240,000	3,624	1.39	-
넥센	450,000	3,389	1.30	-

2.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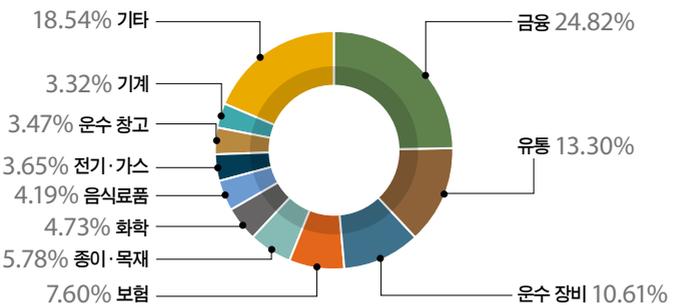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통기간	신용등급	비중
국고채이자0409-2012	6,500	6,092	2010.01.27	2020.12.10	-	RF	2.35
통안0164-1902-02	5,500	5,504	2017.02.02	2019.02.02	-	RF	2.12
국고채이자04220-1906	5,500	5,350	2010.01.27	2019.06.10	-	RF	2.06
국고01750-2012(17-6)	4,800	4,747	2017.12.10	2020.12.10	-	RF	1.83
한국농어촌공사12	4,000	4,013	2015.06.02	2018.06.02	-	AAA	1.55
통안02060-1912-02	3,800	3,804	2017.12.02	2019.12.02	-	RF	1.47

• 비중 (평가액 ÷ 총자산) × 100 비고 (보유주수 ÷ 총발행주수) × 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금융업 비중 줄고 유통업과 운수 장비업, 보험업 비중 늘어

이번 분기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 보면 금융업 비중은 낮아지고 유통업과 운수 장비업, 보험업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금융업은 직전 분기 30.12%에서 24.82%로 비중이 낮아진 반면, 유통업은 13.07%에서 13.30%로, 운수 장비업은 9.51%에서 10.61%로, 보험업은 6.55%에서 7.60%로 각각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주식 보유 비중 상위 종목에는 넥센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권 부문에서는 직전 분기까지 비중이 높았던 은행채 비중을 낮추는 대신 회사채 비중을 늘렸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말		금분기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모)	자산운용회사	299.63	0.10	267.46	0.10	
		클래스 A	84.83	0.13	75.32	0.13
		클래스 C	347.98	0.23	297.74	0.23
		클래스 C-P	179.13	0.20	173.49	0.20
		클래스 S	1.23	0.06	0.69	0.06
		클래스 C-W	-	-	-	-
		클래스 C-E	1.37	0.11	1.08	0.11
		클래스 A-E	0.02	0.06	0.03	0.06
		클래스 C-Pe	0.03	0.10	0.03	0.10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23.66	0.01	21.12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1.04	0.00	9.85	0.00	
	보수 합계	948.91	1.00	846.81	1.00	
	기타 비용	6.03	0.00	5.26	0.00	
	매매 중개 수수료	9.81	0.00	8.86	0.00	
조사 분석 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21.65	0.01	20.03	0.01		
합계	31.47	0.01	28.89	0.01		
증권거래세	44.84	0.01	67.23	0.02		

•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 평균) 대비 비율.
• 보수 합계는 4대 보수의 단순 합계임(판매회사 보수는 전클래스 보수가 합산됨). 클래스별 가입자는 가입 시 명시된 보수 합계에 따름.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전분기	0.01	0.04	0.05
	금분기	0.01	0.04	0.05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전분기	0.93	-	0.93
	금분기	0.93	-	0.93
클래스 C	전분기	1.33	-	1.33
	금분기	1.33	-	1.33
클래스 C-P	전분기	1.23	-	1.23
	금분기	1.23	-	1.23
클래스 S	전분기	0.68	-	0.68
	금분기	0.68	-	0.68
클래스 C-W	전분기	0.42	-	0.42
	금분기	0.42	-	0.42
클래스 C-E	전분기	0.88	-	0.88
	금분기	0.88	-	0.88
클래스 A-E	전분기	0.67	-	0.67
	금분기	0.67	-	0.67
클래스 C-Pe	전분기	0.82	-	0.82
	금분기	0.82	-	0.82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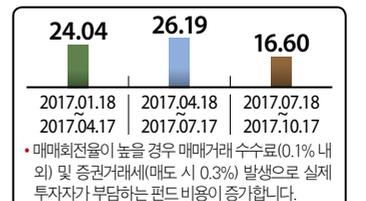
매매 주식 규모 및 회전을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 기간	연 환산
348,971	5,839	766,529	22,414	27.47	108.99

•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 27.47%로 직전 분기보다 높아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은 27.47%로 직전 분기 16.60%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은 줄어든 반면, 주식 매도 금액은 늘어나면서 매매회전율이 다소 상승했습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추가 상승 등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에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하면서 가치투자 전략에 맞게 저평가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업 투자 전략과 가치투자

주식 투자 전략중 하나인 보통업 투자 전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치투자자와 보통업 투자 전략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틈다운 투자 전략과 보통업 투자 전략

주식 투자 전략은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의 틈다운(top-down) 투자 전략이고, 둘째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다는 뜻의 보통업(bottom-up) 투자 전략입니다. 틈다운 투자 전략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각종 거시 경제 지표부터 분석한 다음 이것이 끼칠 영향을 개별 산업과 개별 기업으로 내려가며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통업 투자 전략은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즉 개별 기업에서 시작해 그 실제 가치를 분석한 후 투자 기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거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혼용해서 투자하기도 하는데 정답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저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보통업 투자 전략과 가치투자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이 중 보통업 투자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이나 워런 버핏 같은 가치투자의 대가들 역시 보통업 투자 전략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여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할 때 우리는 자신을 기업 분석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분석가로도, 거시 경제 분석가로도, 심지어 증권 분석가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워런 버핏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중 가치투자의 대가들이 보통업 투자 전략을 신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종 거시 경제 지표가 반영된 ‘미스터 마켓(Mr. Market)’은 변동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을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설픈 틈다운 방식의 분석보다는 확실한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수익을 쌓아나가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보통업 투자 전략에서 인내심은 필수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보통업 투자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입고 크게 성장할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장성’이 부각될 때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개별 기업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줄어든 단계에 들어서면 꾸준히 성장하는 개별 기업으로 시장의 시선이 다변화되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보통업 투자 전략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 받는 기업을 발로 뛰어 제대로 찾아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높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2018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2018년부터 많은 금융 제도와 법규가 달라집니다. 투자자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01 신DTI 도입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계산 방법을 개선해 '상환할 능력만큼만 대출받는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신DTI'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신DTI에서는 새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전 DTI보다 대출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02 법정 최고 금리 24%로 인하

2월 8일부터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법정 최고 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3.9%p 내린 연 24%로 낮아집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돈거래(10만 원 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연 24%의 법정 최고 금리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법정 최고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03 보험금 통합 조회 서비스 실시

2017년 10월 기준으로 주인이 찾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7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험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서비스가 2017년 12월 18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cont.insure.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의 잔액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04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폭 축소

연 35%까지 올릴 수 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폭이 25%로 줄었습니다(2017년 12월 20일부터 적용). 또 2018년 4월 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팔 때 다른 보험 상품을 끼워 넣는 관행이 금지되어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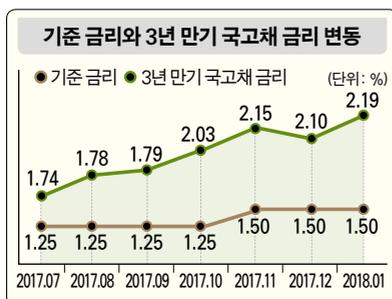
05 클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2018년 1월 1일부터 클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높였습니다.

06 서민형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가입) ISA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농어민형의 경우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지만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전에는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의무 가입 기간(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내에 인출할 경우 혜택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했습니다.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7.07~2018.01)



· 자료: 한국은행(KOSPI-종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